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Educational Need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임현숙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Hyun-Suk Lim(progress@how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은 부모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r=.248, p<.01$)가 있었다. 양육태도에서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양의 상관관계($r=.192, p<.05$)가 있었고 과잉기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도 교육요구도가 높아지고,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사회적지도와 부모자신의 성장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요구도는 학습과 진로지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교육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녀 교육에 효과적인 수용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사춘기 | 결혼이주여성 | 부모교육 요구도 | 양육태도 | 양육효능감 |

Abstract

This study figured out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s educational needs. Accordingly, it is for the purpose of being tried to establish a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vention strategy to promot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for marriage immigration women. This is a study on descriptive correlation among 130 marriage immigration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showed to be affected on the parents educational needs and had positive correlation($r=.248, p<.01$). Recep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utonomous ones in the parenting attitudes had also positive correlation($r=.192, p<.05$).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excessive expectant parenting attitudes are, the higher the educational needs of social instruction are, and the higher the receptive parenting attitudes are, the higher the educational needs to understand growth development are. Also it showed that the lower the parenting efficacy is, the higher the social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need on growth for parents themselves are. The parents educational needs were high in the educational needs on learning, career instruction and education of effective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hoped to develop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develop for marriage immigration women and have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enhancing receptive parenting attitudes, autonomous ones and parenting efficacy.

■ keyword: | Adolescent Children | Marriage Immigration Women | Parents Educational Needs | Parenting Attitudes | Parenting Efficacy |

* 본 연구는 2017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17년 09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21일

교신저자 : 임현숙, e-mail : progress@how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으로 인적·물적·문화적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인종과 문화, 종교가 개별국에 자유롭게 흘러들어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단일민족 국가로 살아왔던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1].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1년 141만 259명에서[2], 2016년에는 203만 4878명으로 전체인구 중 3%를 차지하고 있으며[3], 이중 결혼이민자는 14만 7382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증가하는 외국인 수와 더불어 이들의 자녀 역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2011년 총 3만 8678명으로 전체학생의 0.55%를 차지하였으나[5] 2014년에는 6만7806명으로 전체학생의 1.07%로 조사되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다문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6],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이 되면 국민 20%가 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지고, 농촌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7],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생애주기가 가족 관계 및 부부 적응이 주요 과제인 가족 형성기를 벗어나 자녀 양육 및 교육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8].

이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8][9].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어머니들이 교육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양육 환경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며[10][11], 결혼이주여성 어머니 자신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한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활에서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 양육을 맡게 되는 어머니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 간 양육태도의 차이 등으로 한국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고 자녀의 행동이나 성격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2], 정숙자[13]는 모의 양육태도란 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는나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14] 긍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반면[15]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부적응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16].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특히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지닌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위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지적 변인 중 하나이다[17][18].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9]. 반면에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양육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20][21], 자녀의 긍정적 성장발달에 방해요인이 된다[22].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심리사회적 변화와 성장,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연령에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다. 초기 청소년기(11~14세)에는 급격한 신체 성장 및 독립성향이 나타나고 추상적 사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며, 중기 청소년기(15~17세)에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 또래집단의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상적 사고가 발달한다. 후기 청소년기(18~20세)에는 신체상, 정체성, 자아존중감 등의 확립, 가족으로부터 독립,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역할과 친밀감 형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23].

이러한 급격한 변화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다른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24],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25].

사춘기는 만 11세나 12세에 시작되나 개인에 따라 상이하고 신체적 발달은 대부분 18세가 되면 완료되나 심리적 변화는 10대 중반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 혼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26] 행동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심리, 사회적인 특징을 갖는다.

자녀의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아동기만을 보살피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이후까지 부모의 역할은 계속되기에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극복해야 할 과제도 지속적이며[27], 이전과는 다른 부모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혼이주 여성들도 한국의 다른 부모들과 같이 자녀만큼은 한국인으로써 잘 교육받고 성공하길 바라는 열정은 국내 일반 어머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은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녀양육에 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28][29]. 또한 한국식의 경쟁적 교육에 대한 압박감, 한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족, 교과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30][3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고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32]

부모교육이란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한다[33].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과 갈등을 토대로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육관련 연구는 영유아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34][13], 양육스트레스[35][36] [37], 양육효능감[14][38]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바, 국외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전 발달시기와는 달리 변화하여야 할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경험, 교육, 문화적 맥락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지기 때문이다[39].

따라서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적극적 논의와 대책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부모교육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 4)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으로 11세~15세의 사춘기 자녀를 둔 자, (2) 기초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학윤리심의위원회의심의(1585-201705-HR-001-01)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위한 조건으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40][41] .15

(중간)로 하였으며, 투입할 예측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10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20부는 제외하고 최종 130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31일까지였으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7년 5월에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부모교육 요구도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윤은혜[4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1점, 매우 필요하다에 5점을 주어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점수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을 더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혜[4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8$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사회성 Cronbach's $\alpha = .897$, 학습과 진로지도 Cronbach's $\alpha = .896$,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Cronbach's $\alpha = .866$,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Cronbach's $\alpha = .769$, 효과적인 의사소통 Cronbach's $\alpha = .841$, 부모자신 성장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3.2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정[43]이 개발하고, 김신자[4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등 세 개 하위 영역의 각 문항 수는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채점 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통제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허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 기대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7$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수용 Cronbach's $\alpha = .727$, 자율 Cronbach's $\alpha = .805$, 과잉기대 Cronbach's $\alpha = .745$ 이었다.

3.3 양육효능감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효능감 측정은 Floyd, Gillion과 Costigan[45]의 'Perceive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지영[4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모두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안지영[4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3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730$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서술통계를 수행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 서술통계를 수행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수가 적은 국적, 가족 구성형태,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수입, 주거형태와 의사소통 수단에 따른 차이는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5)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검토하였다.

- 6)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n	%	M	SD
본인연령			38.37	5.37
자녀연령			14.08	1.60
국적				
중국	18	13.8		
일본	14	10.8		
필리핀	27	20.8		
베트남	46	35.4		
캄보디아	14	10.8		
기타	11	8.5		
종교				
기독교	26	20.0		
불교	26	20.0		
천주교	11	8.5		
무교	53	40.8		
기타	14	10.8		
가족구성 형태				
부부+미혼자녀	104	80.0		
한부모 + 미혼자녀	2	1.5		
부모 + 부부 + 미혼자녀	22	16.9		
부모+부부+기혼, 미혼자녀	2	1.5		
학력				
초졸이하	8	6.2		
중졸	20	15.4		
고졸	58	44.6		
대졸이상	44	33.8		
직업				
유	71	54.6		
무	59	45.4		
수입				
100만원 미만	8	6.2		
100~200만원 미만	47	36.2		
200~300만원 미만	49	37.7		
300~400만원 미만	18	13.8		
400만원 이상	8	6.2		
주거				
단독주택	37	28.5		
아파트	49	37.7		
연립,빌라	41	31.5		
기타	3	2.3		
의사소통				
한국어	96	73.8		
주.한국어+모국어	25	19.2		
주.모국어+한국어	9	6.9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37±5.37세이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4.08±1.60세로 나타났다. 국적은 베트남이 46명(3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27명(20.8%), 중국은 18명(13.8%), 일본 14명(10.8%), 캄보디아 14명(10.8%), 기타 11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3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26명(20.0%), 불교 26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104명(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자녀 구성 가구는 22명(16.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8명(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44명(33.8%), 중졸이 20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 49명(3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은 47명(36.2%), 300~400만원 미만 18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49명(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 빌라는 41명(31.5%), 단독주택 27명(29.2%)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한국어가 96명(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모국어도 사용하는 대상자는 25명(19.2%),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며 한국어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9명(6.9%)로 나타났다[표 1].

2.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정도

부모교육 요구도의 총 평균은 4.04±0.70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학습과 진로지도의 교육 요구도가 4.21±0.73으로 가장 높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4.11±0.69,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4.07±0.70, 사회성 지도 3.97±0.78,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3.94±0.61, 부모자신 성장 3.94±0.66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총 평균은 2.74±0.43이었으며, 하부영역 수용적 양육태도는 2.89±0.33, 자율적 양육태도는 2.89±0.50으로 나타났으며, 과잉기대 양육태도는 2.45±0.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2.59±0.34로 나타났다[표 2].

표 2.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정도

항목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부모교육 요구도	1	5	4.04	0.70
사회성 지도	1	5	3.97	0.78
학습과 진로지도	1	5	4.21	0.73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1	5	4.07	0.70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1	5	3.94	0.61
효과적인 의사소통	1	5	4.11	0.69
부모자신 성장	1	5	3.94	0.66
양육태도	1	4	2.74	0.43
수용	1	4	2.89	0.33
자율	1	4	2.89	0.50
과잉기대	1	4	2.45	0.48
양육효능감	1	4	2.59	0.3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구성형태(p<.05)와 본인 직업(p<.05)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 형태는 부부, 자녀가 2.62로 부모, 부부, 자녀의 2.47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본인이 직업이 있을 때의 양육효능감은 2.66로 직업이 없는 사람의 2.52보다 높았다[표 3].

4.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은 양의 상관(r=.200, p<.05)이 있으며, 양육효능감과 교육요구도는 음의 상관(r=-.200,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에서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양의 상관관계(r=.192, p<.05)가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과도 양의 상관관계(r=.248, p<.01), 부모교육 요구도 하위영역별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3, p<.05). 자율적 양육태도는 과잉기대 양육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r=-.731, p<.001)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요구도에서는 사회성 지도(r=-.180, p<.05), 학습과 진로지도(r=-.290, p<.01)와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 태도		양육 효능감	
	M±SD	t/F	M±SD	t/F	M±SD	t/F
국적†		3.111		4.975		4.706
중국	4.23 ± 0.64		2.78 ± 0.19		2.56 ± 0.31	
일본	3.89 ± 0.63		2.73 ± 0.11		2.53 ± 0.23	
필리핀	4.05 ± 0.61		2.77 ± 0.16		2.70 ± 0.36	
베트남	4.02 ± 0.61		2.75 ± 0.20		2.57 ± 0.40	
캄보디아	3.95 ± 0.47		2.65 ± 0.21		2.53 ± 0.22	
기타	4.11 ± 0.55		2.74 ± 0.21		2.65 ± 0.27	
종교		.443		-1.186		1.188
유	4.06 ± 0.59		2.73 ± 0.19		2.62 ± 0.37	
무	4.01 ± 0.61		2.77 ± 0.17		2.55 ± 0.30	
가족 구성 형태†		1.103		1.202		5.334*
부부+미혼자녀	4.02 ± 0.59		2.75 ± 0.19		2.62 ± 0.34	
한부모 + 미혼자녀	4.21 ± 0.14		2.80 ± 0.02		2.77 ± 0.61	
부모 + 부부 + 미혼자녀	4.09 ± 0.64		2.73 ± 0.15		2.46 ± 0.29	
부모+부부+기혼, 미혼자녀	4.26 ± 1.05		2.65 ± 0.15		2.60 ± 0.28	
자녀수		0.894		1.099		0.700
1명	4.04 ± 0.56		2.77 ± 0.20		2.62 ± 0.37	
2명	4.09 ± 0.58		2.73 ± 0.16		2.55 ± 0.31	
3명 이상	3.85 ± 0.80		2.70 ± 0.21		2.61 ± 0.32	
성별		0.238		0.238		0.816
남자	4.05 ± 0.62		2.75 ± 0.20		2.62 ± 0.39	
여자	4.03 ± 0.58		2.74 ± 0.17		2.57 ± 0.28	
본인 학력†		1.496		0.347		1.716
초졸이하	4.12 ± 0.36		2.73 ± 0.19		2.58 ± 0.67	
중졸	3.99 ± 0.65		2.77 ± 0.20		2.68 ± 0.30	
고졸	4.10 ± 0.59		2.75 ± 0.19		2.59 ± 0.36	
대졸이상	3.97 ± 0.62		2.73 ± 0.18		2.56 ± 0.25	
배우자 학력†		3.661		2.551		1.837
초졸이하	4.18 ± 0.19		2.61 ± 0.09		2.53 ± 0.37	
중졸	3.84 ± 0.56		2.75 ± 0.19		2.68 ± 0.35	
고졸	4.05 ± 0.58		2.74 ± 0.20		2.59 ± 0.36	
대졸이상	4.14 ± 0.67		2.75 ± 0.16		2.55 ± 0.30	
본인 직업 여부		-1.092		0.774		2.362*
유	3.99 ± 0.50		2.76 ± 0.20		2.66 ± 0.35	
무	4.10 ± 0.69		2.73 ± 0.16		2.52 ± 0.31	
수입†		5.384		2.374		8.963
100만원 미만	4.06 ± 0.58		2.67 ± 0.23		2.40 ± 0.08	
100~200만원	3.99 ± 0.63		2.75 ± 0.22		2.56 ± 0.33	
200~300만원	4.12 ± 0.58		2.77 ± 0.16		2.62 ± 0.39	
300~400만원	4.11 ± 0.54		2.71 ± 0.17		2.61 ± 0.27	
400만원 이상	3.66 ± 0.54		2.75 ± 0.13		2.80 ± 0.31	
주거 형태†		3.009		3.627		2.496
단독주택	3.96 ± 0.61		2.79 ± 0.17		2.61 ± 0.28	
아파트	4.06 ± 0.62		2.73 ± 0.20		2.61 ± 0.32	
연립빌라	4.07 ± 0.56		2.71 ± 0.15		2.54 ± 0.40	
기타	4.54 ± 0.25		3.02 ± 0.49		2.93 ± 0.57	
결혼 만족도		-.042		0.799		0.815
예	4.04 ± 0.63		2.76 ± 0.20		2.62 ± 0.35	
아니오	4.04 ± 0.56		2.73 ± 0.15		2.57 ± 0.29	
의사 소통 수단†		6.195		0.069		3.199
한국어	3.98 ± 0.55		2.75 ± 0.19		2.62 ± 0.32	
주.한국어+모국어	4.25 ± 0.73		2.74 ± 0.16		2.47 ± 0.39	
주.모국어+한국어	4.07 ± 0.60		2.75 ± 0.18		2.63 ± 0.32	

† : Kruskal-Wallis test
p<.05

표 4.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A	a	b	c	d	e	f	B	g	h	i	C
A 부모교육요구도	1,000											
a 사회성 지도	.765***	1,000										
b 학습과 진로지도	.862***	.692***	1,000									
c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899***	.578***	.731***	1,000								
d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890***	.556***	.677***	.810***	1,000							
e 효과적인 의사소통	.863***	.473***	.670***	.782***	.781***	1,000						
f 부모자신 성장	.867***	.564***	.630***	.739***	.797***	.762***	1,000					
B 양육태도	.132	.101	.069	.099	.140	.138	.136	1,000				
g 수용	.151	.062	.083	.155	.183*	.162	.149	.790***	1,000			
h 자율	-.137	-.180*	-.290**	-.073	-.045	-.043	-.042	.391***	.192*	1,000		
i 과잉기대	.195*	.266**	.331***	.088	.086	.095	.102	.215*	.035	-.731**	1,000	
양육 효능감 C 양육효능감	-.200*	-.362***	-.159	-.103	-.109	-.100	-.162	.200*	.248**	.156	-.100	1,000

*p<.05 **p<.01 ***p<.001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기대 양육태도와는 부모교육 요구도에서 사회성 지도($r=.266$, $p<.01$)와 학습과 진로지도($r=.33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는 부모교육 요구도에서 사회성 지도와($r=-.362$, $p<.001$)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요구도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5.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다. VIF 값은 1.042~1.042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다. 따라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양육태도($p=.042<.05$), 양육효능감($p=.008<.01$)은 부모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가 높을수록($\beta=.179$),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beta=-.236$) 부모교육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교육요구도에 더 높은 영향을 주었으며,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7.1%이다.

표 5.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

	부모교육요구도				
	B	SE	β	t	p
상수	3,533	.792		4,459	.000
양육태도	.574	.280	.179	2,054	.042
양육효능감	-.413	.153	-.236	-2,702	.008
F(p)	4,842 (.009)				
adj R ²	.056				
d(d _U)	1,998 (1,761)				
z(p)	.744 (.637)				
χ^2 (p)	4,990 (.083)				

*p<.05

d : Durbin-Watson's auto-correlation coefficient(자기상관계수)
 z : Kolmogorov-Smirnov's residual normality test(잔차 정규성 검정)
 χ^2 : Breusch-Pagan's residual heteroscedasticity test(잔차 이분산성(등분산성) 검정)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검정(goodness-of-fit test)은 잔차검정을 이용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990으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은 없이 독립이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을 만족하는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 잔차의 정규성은 표준화된 잔차에 대하여 Kolmogorov-Smirnov test, 잔차의 등분산성(이분산성) 검정은 Breusch-Pagan test를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성 검정 결과,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모

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IV. 논의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시도한 연구로써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4.04를 나타냈으며, 하부 영역별로 학습과 진로지도 4.21, 효과적인 의사소통 4.11,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4.07, 사회적 지도 3.97,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3.94, 부모자신 성장 3.94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를 연구한 최미경[47]의 연구에서 부모교육 요구도는 3.23~3.50으로 분포하였으며, 진로 및 적성에 관한 내용이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발달 시기는 진학의 방향을 고려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로와 적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교육프로그램 중재 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와 적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야할 중요 주제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되어지며, 이들이 인터넷 및 메스미디어를 통한 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 진다.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4점 만점에 수용적 양육태도 2.89, 자율적 양육태도 2.89, 과잉기대 양육태도 2.45로 모두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학령기를 운동,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발달의 특징을 기반으로 1~3학년은 저학년, 4~6학년은 고학년으로 구분하고[48] 한국 어머니의 자녀의 학년에 따른 양육태도를 측정한 김계숙[49]의 연구에서도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과

잉기대 양육태도는 자녀가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심리사회적 변화와 성장,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독립적인 성향이 나타나며[39],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와 적성, 학교생활 적응, 문제행동 등 갈등과 혼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상황적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35]. 이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 사춘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의 영향으로 한국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 모두에게서 양육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며[30][35], 한국문화에 적용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머니들처럼 양육불안을 겪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한국어머니들처럼 비슷한 상황 불안, 양육불안, 양육태도를 갖게 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도 판단되어지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수준의 차이도 대상마다 다를 것이며,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이에 따른 추후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59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2~3세의 자녀를 둔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한 안지영[46]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박선미[50]의 연구에서는 185점 만점에 평균 133.6점이었고 이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88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예측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막연하고 획일적인 선입견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양육효능감이 중간 점수 이상으로

측정된 것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에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의 존재 유무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도 중요하다. 자녀 양육시 인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예전 실정과 달리,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사회적 자조그룹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양육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정보매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박선미[50]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에도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어지며, 양육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본인 직업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이 있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51]도 본 연구를 간접적이지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은 양의 상관이 있으며, 양육효능감과 부모교육 요구도는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 하위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용적 양육태도와 비과잉적 양육태도가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 학부모 관여가 지나친 현 교육여건에서 자녀의 교육에 과잉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써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 오히려 자녀교육에 더욱 세심한 요구충족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청신호로 보고 이에 따른 자율적 교육여건 조성 과 교육 시스템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양육태도, 자율

적 양육태도일 때 부모교육 요구도 하위영역 중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잉기대 양육태도는 부모교육 요구도 하위영역 중 사회성 지도와 학습과 진로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과 진로, 사회성 등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훨씬 더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율성의 허용범위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리봉월[52]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결과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이기에, 추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 및 반복 연구를 통해 재확인 필요하리라 본다.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교육요구도가 높아지며, 이 중 양육효능감이 부모 교육요구도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최미경[4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춘기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태도는 수용적양육태도와 자율적양육태도가 과잉기대 양육태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아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더욱 양육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발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춘기자녀들을 양육해나가는 데 청신호로 보여진다. 다만 국가가 재정적, 시스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표본이 전체도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한 가정을 이루며 국가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결혼이주민들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경우 하위변수가 없어서 부득이 나머지 두변수와 하위영역을 함께 보는데 무리가 있었음을 밝히며 본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를 준비해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요구도에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춘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지혜, *국내 다문화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서울 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7월 출입국 동향 보고서*, 2011.
-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7월 출입국 동향 보고서*, 2016.
- [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16.
- [5] 교육부, *2011년 다문화 학생현황*, 2011.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29708&lev=0&searchType=](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29708&lev=0&searchType=full&statusYN=W&page=1&s=moe&m=030209&opType=N)
- [6] 교육부, *2014년 다문화 학생현황*, 2014.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57128&lev=0&searchType=full&statusYN=W&page=1&s=moe&m=030209&opType=N>
- [7] 통계청,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의 결혼 인구이동 연구*, 2009.
- [8] 김희정, 김정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CBT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3권, 제2호, pp.135-148, 2015.
- [9] 서지영, *경북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착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윤인진, “외국인 100만명 시대와 국제결혼사회,” *자유공론*, 제481호, pp.70-75, 2007.
- [11] 인봉숙, *한일 국제 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2] W. C. Becker,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ver*, New York: Russell sage, 1964.
- [13] 정숙자, *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유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4] 최미향,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 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5]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 pp.149-173, 2012.
- [16] 최순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7] 최형성, 정옥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15, 2001.
- [18] O. M. Teti and D. M. Gelfand, “Behavioral

-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pp.918-929, 1991.
- [19] S. Dorsey, K. Klein, R. Forehand, and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Parenting self efficacy of HIV- 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1, pp.295-305, 1999.
- [20] 한지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임연신,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2]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Vol.24, No.2, pp.126-148, 2003.
- [23] A. E. Kazak, B. W. Derosa, L. A. Schwartz, W. Hobbie, C. Carlson, R. F. Ittenbach, J. J. Mao, and J. P. Ginsberg, "Psychological outcomes and health beliefs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and Control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28, No.12, pp.2002-2007, doi:10.1200/JCO.2009.25.9564, 2010.
- [24] 권이중,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6.
- [25] 현은민, "청소년의 가출 :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2호, pp.41-55, 2000.
- [26] 광금주, 김정미, 유제민,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제20권, 제3호, pp.83-98, 2007.
- [27] 김경수, 김화경,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pp.143-170, 2011.
- [28] 이영애, "결혼이주 여성들의 결혼생활과 육아경험에서 오는 갈등과 소망", *유아교육학논집*, 제16권, 제5호, pp.435-457, 2012.
- [29] 강기정, "다문화가족 모(母)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코칭 경험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3호, pp.111-125, 2009.
- [30] 이은경,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31] 김승희,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4호, pp.17-33, 2011.
- [32] 임은미,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pp.61-82, 2014.
- [33] 김경희, 이재연, *부모교육*, 양서원, 1993.
- [34] 한경순,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5] 김도희, 김성이, 신호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3호, pp.53-78, 2007.
- [36] 김춘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7] 전상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8] 김도희,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9] D. Koniak-Griffin, M. C. Logsdon, V. Hines-Martin, and C. C. Turner, "Contemporary mothering in a diverse societ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Vol.35, pp.671-678, 2006.
- [40]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41]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53-266, 2015.
- [42] 윤은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3] 김기정,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44] 김신자,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5] F. Floyd, L. A. Giliom, and C. L. Costigan,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 of change in pareting perceptiona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69, No.5, pp.1464-1479, 1998.
- [46] 안지영,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47]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제29권, 제5호, pp.227-242, 2008.
- [48] 김계숙, *인간성장과 발달*, 신광출판사, 2015.
- [49] 김계숙,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0] 박선미,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51] 한서연,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52] 리봉월, *한·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연변과 제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저 자 소 개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1983년 2월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간호전문대학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